

“해외 투자자들 몰려 오나” 금융중심지 부산 ‘기대감’

김형 기자 moon@busan.com

입력 : 2022-08-01 19:13:49

SC벤처스, 부산 방문 IR 설명회

글로벌 은행 계열사 방문 ‘이례적’

비대면 IR서도 유럽 금융사 관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금융중심지 부산이 해외 금융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은행의 계열사가 이례적으로 부산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는가하면, 유럽지역 주요 금융사들도 부산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에서 글로벌 은행인 스탠다드 차티드(SC)의 계열사인 SC벤처스(SCVentures)와 함께 IR 설명회를 개최한다.

SC벤처스는 글로벌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로 1969년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글로벌 은행의 계열사가 부산을 직접 방문해 IR에 참여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게 지역 금융업계의 반응이다.

이날 IR에는 국내 최초 푸드트럭 단체주문 플랫폼 ‘푸드트래블’, 해외 송금 플랫폼 ‘Sentbe’, 디지털자산 재테크 서비스 플랫폼 ‘GMC Labs’, 재해성 보험 AI 플랫폼 ‘넥슬’ 그리고 의료데이터 플랫폼 ‘AI Platform’ 등 부산지역 기업 5곳이 참여한다.

지역 금융가에서는 SC벤처스처럼 해외 금융사들이 부산에 금융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지난달 말 유럽지역 자산운용사와 전문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비대면 IR에서도 부산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설명회는 유럽지역 금융사들에게 부산의 민관 협력 인프라 투자 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30여 개 금융사와 금융기관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측은 '부산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북항재개발, 부산항 진해신항 신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 부문 투자 기회를 설명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오는 9월이나 10월에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IR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유럽지역 금융사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예상 외로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 의외였다"며 "금융중심지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2030 세계박람회유치를 알리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